

사회교리의 이해와 실천 천주교 안동교구의 실행적 사례연구*

오일창

천주교 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요약】

이 연구는 ‘사회교리의 이해와 실천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해와 실천은 어떻게 학습 되는가’ 그리고 ‘그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질적 실행연구를 통하여 찾고 있다.

실행연구의 사례는 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가 2016년과 2017년 안동교구의 지구교회를 찾아가서 실행한 워크숍이다. 워크숍은 참여자들이 사회교리 주제에 대하여 대화하는 과정이었으며, 연구자가 운영자가 되어서 워크숍 실행이 연구가 되고 연구가 워크숍 실행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나는 사회교리 워크숍을 통하여 분리되었던 사회생활과 신앙이 통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전기(2016) 워크숍에서는 기대에 어긋나서 실망스러웠다. 후기(2017) 특히 4차에 이르러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질적 현상임을 깨달았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맥락 안에서 주제화, 실천화, 공동체화 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나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사회교리를 이해/실천한 질적 실행연구라는 점에서 사회교리 교육의 새로운 면을 드러낸 의의가 있다.

핵심주제어: 사회교리, 이해/실천, 학습, 질적 실행연구, 워크숍, 역동적인 모습, 삶의 현장

* 본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강엘리사벳 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I.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을¹⁾ 위한 문제제기

이 연구는 가톨릭 사회교리 교육에 대한 질적 실행연구이다. 신앙교육은 신앙의 주제 이면서 교육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 연구가 신앙인으로서 가톨릭교회와 신자들에게 의미가 있고, 교육연구자로서는 교육과 질적 연구에 의미 있는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

1.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이란?

사회와 종교 사이에는, 사회와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조화’와 ‘거리’가 있게 마련이다. 사회와 종교 사이의 조화와 거리에 대한 접근 방식은 종교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이를 ‘사회교리’라고 한다. 사회교리는 가톨릭 신앙이 사회생활에서 의미 있도록 하는 교리이다. 세속화된 현대사회는 사회와 신앙이 유리되기 쉬우므로 사회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는 전문적 수준의 사회교리를 논의할 능력이 없으며, 또 의사도 없다. 나는 일생을 교사로 살았고, 신자로서 30여 년 교구정의평화위원을²⁾ 맡으면서 사회생활과 신앙의 조화를 상심해 왔다. 나는 사회생활에 신앙을 담도록 해주는 사회교리교육을 찾아왔는데, 이것이 바로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톨릭교회의 〈간추린 사회교리〉는³⁾ “교회는 사회교리로 복음을 선포하고, 사회관계의 복잡한 구조 안에 복음을 현존시키고자 한다.”⁴⁾고 하고, 이때 ‘복음의 현존’은 “사회교리는... 복음 메시지와 사회생활의 늘 새로운 만남에서 생겨난다.”⁵⁾고 하였다. 이 관점은 사회교리교육이 교리 지식을 전수 할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복음(신앙)이 현존되도록 하는 ‘복음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은 사회교리 교육으로 복음화 된다는 말과 맥을 같이한다. 사

1) 이 글에서 이해와 실천을 굳이 이해/실천으로 붙여 쓴 것은 양자의 밀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밀접성을 나타내는 표현은 조용환,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 관계」 『교육인류학연구』 4(2)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2001) 5쪽을 참조하였다.

2) 가톨릭교회에는 사회교리의 구현을 위한 조직으로 교황청, 한국주교회의, 각 교구에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있다.

3)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간추린 사회교리』(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4) 위의 책, 62항

5) 위의 책, 67항

회교리는 교리 중의 한 부문이 아니라 사회생활과 신앙을 만나게 해주는 도구적 특성을 지닌 교리이며, 사회생활과 신앙의 만남에서 비로소 생겨나는 구성적 특성을 지닌 교리이다. 이 관점에서 사회교리교육은 교리지식의 교수-학습보다는 복음(신앙)으로 삶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의 형식의 전환을 지향 한다. 복음화(신앙)라는 삶의 형식은 사회교리 교육을 통하여 사회생활에 복음(신앙)을 담고자 하는 변증법적 해석/실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⁶⁾

교리교육에서 ‘복음화’를 중시하게 된 것은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복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새로운 복음화’로 새롭게 사용하면서 1990년대 이래 교회의 사명을 나타내는 말로 주목 받게 되었다.⁷⁾ 본 연구도 새로운 복음화교육의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토마스 H. 그룸의 종교교육방법론은 사회교리의 이해/실천과 일맥상통한다. 그룸은 삶과 괴리된 신앙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Life to Faith to Life) 이어지는 순환적 구조의 신앙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서⁸⁾ 본 연구에 시사점이 컸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리고 실행연구로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을 다루는 선행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나는 사회교리 교육을 총체로서 인간의 한 삶의 형식으로 보고 그 때 이루어지는 교육을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으로 보면서 이 연구에서 그 실제적인 의미를 찾아가고자 한다.

2. 교회화 교육과 질적 교육

교리는 교회 안에서 확립되고, 교회에 의해서 전승되고, 교회를 통하여 전파된다. 가톨릭교회는 이단을 배척하여 교리를 확립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리를 옹고게 전승하며, 온 세상에 교리를 전파하려고 한다. 이 교리의 확립, 전승, 전파 과정은 ‘문화전승’으로서의 ‘사회화’와 비견할 수 있으므로 ‘교리전승’으로서 ‘교회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 교리를 받아드려서 ‘교회화’된

6) 조용환, 앞의 글, 5쪽 교육에 대한 논의를 종교교육에 적용하였다.

7) 박석천, 「한국천주교회의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연구 - 신자 재교육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14-121쪽

8) 윤지운, 「Thomas H. Groome의 신앙 이해 및 신앙 전달 방법론 연구 - ‘피로사회’의 현대인이 가지는 특성을 중심으로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23-127쪽

다고 할 수 있다.⁹⁾

한편 신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화’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복음은 하느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느님 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구원’의 의미가 된다. 이 하느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복음화는 하느님 나라의 건설 과정이 되며, 여기에 참여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므로 복음화는 곧 신자가 되는 과정이다.

교회화에서 교육은 교리를 전달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회와 교리에 종속된 개념이 된다. 이 때 교육은 교회의 교리 전통이 변질되지 않게 보전하면서, 세대를 이어가고, 세상으로 전파되게 하는 역할을 맡는데 변화를 지향하는 교육 고유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소극적인 기능을 지니게 된다.

복음화에서 교육은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적극적 기능을 지닌다. 신앙과 교육을 포함 관계로 보지 않고 독립적인 관계로 본다면, 교육은 복음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실천하게 하는 ‘삶의 형식’¹⁰⁾이 되어 교육 고유의 개념이 된다. 이를 우리는 질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교리는 사회를 향하여 교리를 선포한다는 측면에서는 교회화 운동이지만, 현세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여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바꾸어 가려는 측면에서는 복음화 운동이다. 이 연구는 사회교리의 복음화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교회화 교육과 복음화 교육을 관련짓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가 말하는 교회화 교육 쪽은 ‘교리교육 충지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교리교육을 규정한 교회의 공식 가르침으로서 교회의 교도 임무로 받아드려야 하는 문서이다.¹¹⁾ 이 밖에도 사회교리를 교리자체로서 정리하고, 가르치고, 생활과 관련짓는 자료들로부터 이 연구의 문제의식을 키웠다. 복음화 교육 쪽은 위에서 논의한 ‘삶의 형식으로서 교육’에서부터 문제의식을 키웠다.

3. 천주교 안동교구의 현실

천주교 안동교구는 경북 북부지역 4개시와 7개 군에 있는 40개 성당으로 구성되어

9) 문화전승으로서의 ‘사회화’를 종교(교회)전승으로서의 ‘교회화’에 적용하였다. 이 관점은 조용환, 『사회화와 교육: 부족사회 문화전승 과정의 교육학적 재검토』 (서울: 교육과학사, 1997)를 참조하였다.

10) 조용환,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 관계」 『교육인류학연구』 4(2)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2001), 5쪽

11) 조영훈, 교회의 교도 임무로서 교리교육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48-151쪽

있다. 한국교회에서 안동교구는 농촌 교회,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로 불리는 취약한 교구이다.¹²⁾ 그러나 안동교구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복음화의 기회로 보았다. 안동교구교회는 “우리는 이 터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였다.¹³⁾ 복음화 지향이 강한 사명선언문은 안동교구의 사회교리라고 할 수 있다.¹⁴⁾ 간추린 사회교리와 안동교구 사명선언문은 구조적으로 매우 닮아 있다.

〈표 1〉 간추린 사회교리와 안동교구 사명선언문

구분	간추린 사회교리	안동교구 사명선언문
제1부 총론	*사회교리란 무엇인가? *사회교리 원리들 : ①인간 존엄성의 원리 ②공동선의 원리 ③보조성의 원리 ④연대성의 원리	*우리는 : 복음화의 주체 *하느님 나라를 일구는 길 : ①열린 마음 ②소박한 삶 ③생명 중시 ④나눔과 섬김으로써
제2부 각론	*사회교리의 주제들 ①사회의 기본 세포인 가정 ②인간 노동 ③경제생활 ④정치공동체 ⑤국제공동체 ⑥환경보호 ⑦평화 증진	*이 터에서
제3부 결론	*사랑의 문명을 향하여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한편, 〈간추린 사회교리〉가 발간되면서 대도시 교구는 사회교리 학교를 열었다. 사회교리학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서울대교구에서는 사회교리 교육을 체계화하여 방대한 연구서들을 출간하였다. 사회교리 내용을 다룬 ‘가톨릭 사회교리 1(입문편), 2(중급편), 주제편, 문헌편’과 사회교리를 현실에 적용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 1, 2, 3권’을 발간하였다.¹⁵⁾ 안동교구 교회는 서울의 사회교리학교를 축소하여 시행하기보다는 접근 방법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쪽을 택하였다. 사회교리학교를 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농촌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고, 대부분 토착적인 생업에 종사

12) 천주교 안동교구, 「농민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 안동교구 농민사목 특별교서 -」(안동: 천주교 안동교구, 2004), 18항

13) 위의 글의 표지 글. 안동교구 교회는 사명선언문을 돌에 세기고, 자주 구호로 외치고 있다.

14) 천주교 안동교구, 『안동교구 사목비전 설정 연구 자료집』(안동: 천주교안동교구, 2004), 42쪽 참조

15)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 사회교리 1(입문편), (1995) 가톨릭 사회교리 2(중급편), (1996) 가톨릭 사회교리 주제편, (2010) 가톨릭 사회교리 문헌편, (2011) 세상 속의 그리스도 1, (2008) 세상 속의 그리스도 2, (2009) 세상 속의 그리스도 3, (2011)

하는 이들로서 전문적인 교육에 참여를 어려워 하고, 교구에 신학교가 없으므로 전문 교수자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취약한 여건 때문에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회교리 학교를 포기하고, 지역 교회 현장을 찾아가고, 참여자들이 대화로 생활경험을 나누면서, 스스로 실천하는 주체로 서도록 하는 사회교리 워크숍을 조직하였다.

4. 연구 질문

이 연구는 다음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을 찾고 있다.

1)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연구는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의 의미’를 묻고 있다. 사회교리의 도구적 특성과 구성적 특성은 사회교리를 지식체계로서 개조화 된 일반교리와 다르게 받아드리길 요청하고 있다.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은 사회생활과 신앙이 분리와 통합 사이에서 변증법적 만남이 일어나는 교육을 상징한 말이지만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제대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이해/실천의 의미’는 삶과 얽힌 문제로 보이므로 참여자의 삶에서 찾아가는 실행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사회교리는 어떻게 학습되어 가는가?

의미에 이어지는 질문은 ‘참여자에게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학습’의 문제이다. 학습의 문제는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이 일어났는지 여부’ 그리고 나아가 ‘이해/실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찾고 있다. 그리고 학습은 당연히 학습의 과정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실행연구 과정에서 학습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3) 안동교구에 적합한 사회교리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은 상황과 맥락 안에서 일어난다. 이 연구는 안동교구의 상황과 맥락에서 전개되는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을 찾고자 한다. 사회교리 워크숍이 안동교구 교회와 신자들의 상황과 맥락 안에서 〈간추린 사회교리〉에 ‘안동교구사명선언문’을 담은 안동교구의 사회교리 교육과정으로 적합한지를 찾아가는 연구가 되고자 한다.

II.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을 위한 연구방법

이 연구는 안동교구 교회에서 수행한 사회교리 교육의 구체적인 과정을 드러내고, 그것이 사회교리 교육과 참여자에게 주는 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교회 현장에서 사회교리 워크숍을 열고,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실행연구이다. 실행연구 과정은 현장에서 문제점 발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행, 그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성찰, 성찰에 기초한 또 다른 실행을 잇는 순환과정이었다.

이 연구는 사회교리 교육 과정을 드러내는 데 있어 실행의 성과를 검증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교리 워크숍 실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노력한 현상학적 연구에 속한다. 연구를 통하여 사회교리 교육이라는 현상의 본질에 접근하고, 참여자가 주체로서 사회교리를 이해/실천하는 현상의 본질에 접근하려 하였다. 실행연구는 사회교리에 대한 ‘현장 실천’과 ‘대화’를 두 축으로 삼았다.¹⁶⁾

1. 실행연구 현장과 참여자

여러 해 전부터, 정의평화위원회 내부와 외부로 부터 사회교리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수 년 간의 검토 끝에 사회교리학교가 안동교구의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안동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워크숍을 선택하고, 2015년 교구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정의평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회교리 교육 프로그램을 열게 되었다.

사회교리 워크숍은 지역 교회를 찾아가서 참여희망자를 모집하여 열었다. 안동교구는 6개 지구로 나뉘어 있으며 각 지구는 5-10개 성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워크숍은 이 지구를 순회하기로 하고 지난 2년간 4개 지구를 찾아가서 실행연구 하였다.

표의 참여자 란에서 적극 참여는 2회 이내 결석자로서 꾸준히 참여한 이들이다. 중도 포기는 절반 이상 결석하거나 후반부에 연속적으로 결석한 이들이다. 중도 포기는 어려운 사정 때문인 이들과 교육에 의미를 못 느낀 이들로 나누어지는 것 같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지는 못하였다.

16) 전가일,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좋은 수업 만들어 가기: 해석학적 질문과 대화를 통한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17(2),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2014) 6-11쪽 참조

〈표 2〉 실행연구 현장과 참여자

순	지구이름	워크숍 운영	참여자	비고
1차	안동지구 송현동 성당	2016.4.1-6.10 (10주간) 목, 저녁 8:00-10:00	21명 등록, 10명 적극 참여 5명 중도 포기	송현동 성당(정평위원장 재직) 신자가 주로 참여
2차	상주지구 계림동 성당	2016.10.10-12.19 (10주간) 월, 저녁 7:30-10:00	34명 등록 15명 적극 참여 8명 중도 포기	성당을 찾아가서 적극 홍보, 실제 집담회 2시간
3차	문경지구 점촌동 성당	2017.2.20-4.24 (10주간) 월, 저녁 7:30-10:00	39명 등록 20명 적극 참여 10명 중도 포기	워크숍 과정과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함
4차	의성지구 의성 성당	2017.5.15-7.17 (10주간) 월, 저녁 8:00-10:00	19명 등록 12명 적극 참여 4명 중도 포기	의성성당 만 참여, 집중적으로 운영

사회교리 교육을 워크숍으로 조직한 것은 철저한 현장연구를 위해서이다. 실행연구는 현장 안에서 실행이 곧 연구가 되는 문제를 찾고 문제 삼으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또한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¹⁷⁾

2. 실행/연구 과정

워크숍은 차수가 바뀔 때마다 변화가 따랐지만 2016년(전기)과 2017년(후기)이 전기와 후기로 나눌 정도로 변화를 보였고, 4차 의성 워크숍이 심도 면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를 보였다.

1) 워크숍 주제 조직

사회교리 워크숍에서는 〈간추린 사회교리〉를 기본교재로 삼고, 안동교구의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였다. 주제 이름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은 연구자의 개입과 워크숍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6주의 ‘농민 - 농민사목 - 생명신앙’으로 변화이다. ‘국제공동체’를 농촌교구에 맞추어 ‘농민’으로(‘대중문화’ 추가) 바꾸고, 농민은 다시

17) 조용환,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8(4).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2015) 16쪽

교회가 사목하는 농민에 초점을 맞추어 ‘농민사목’으로 바꾸고, 이내 ‘교회의 농민사목’이 참여자의 관심 밖에 있음을 보고 농민사목으로 신자에게 형성된 ‘생명신앙’으로 주제를 바꾸게 되었다.

〈표 3〉 사회교리 워크숍의 주제

주	간추린 사회교리		전기 워크숍 주제	후기 워크숍 주제	비고
1	1부: 총론		입문, 총론	입문, 총론	실행연구 소개
2	2부	가정	가정생활	가정공동체	공동체 과정 중시
3		인간 노동	일(노동)	일(노동)	농촌지역 현실 감안
4		경제생활	경제생활	생활경제	생활현장의 경제, 정치로 관점 전환 시도
5		정치공동체	정치공동체	생활정치	
6		국제공동체	농민(농민사목)	농민사목-생명신앙	현장에 맞춤, 교회의 사목-신자의 신앙 관계
7			대중문화	대중문화	
8		환경보호	환경보호	환경보호	
9		평화증진	평화 통일	평화 통일	통일을 추가
10	3부: 결론		참여 소감나누기	참여 소감나누기	워크숍에 맞추어 조정

워크숍 주제의 변화는 생활세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현장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연구자와 함께 실행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현장 맥락에 맞게 그 주제를 다루고, 참여자들의 사회생활과 신앙이 실제로 더 나아지도록 힘쓰기 위해서였다.¹⁸⁾

2) 워크숍 진행 과정

워크숍은 주제에 따라 대화하는 과정으로 조직하였다. 〈표 5〉의 둘째 시간의 ‘주제화’가 다음 주의 ‘대화’(실천경험 나누기)와 짝을 이룬다. 워크숍 사이 한주간은 ‘현장 실천’ 기간이다. 대화 시간을 전기에는 모둠과 전체로 나누었지만 후기에는 연결 지어 보았다.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은 전기에는 연구자의 강의에 가까웠고, 후기에는 참여자와 함께 주제화와 실천 작정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현장 실천은 전기에는 워크숍 밖에 있었다면 후기에는 워크숍 안으로 들어와서 긴 셋째 시간으로 여겨졌다. 표에서 음영으로 나타낸 부분이 세트를 이루어 반복되었다.

18) 위의 글, 16쪽

〈표 4〉 전기 워크숍 진행과정

첫째 주				둘째 주		
1차시	2차시	3차시		1차시	2차시	3차시
1주제 경험 나누기 (그룹)	대화 발표 - 성찰(전체)	2주제 제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에서 2주제 경험 찾기	2주제 경험 나누기 (그룹)	대화 발표 - 성찰(전체)	3주제 제시

〈표 5〉 후기 워크숍 진행과정

1차시	2차시	(3차시)	1차시	2차시
지난주 주제 실천경험 나누기 〈모둠→전체〉	다음 주 주제 이해하기(주제화) 실천 작성	생활 현장 주제 실천	지난주 주제 실천경험 나누기 〈모둠→전체〉	다음 주 주제 이해하기(주제화) 실천 작성

‘실천과 대화’는 워크숍의 중심으로서 참여자들을 주체로 세우려는 노력이다. 실행연구는 연구의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거부한다.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연구자와 동등한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¹⁹⁾

3. 자료의 구성

첫째, ‘참여 관찰 자료’는 워크숍 모습을 캠코더로 담고, 돌아와서 동영상을 보면서 관찰 기록한 자료와 연구자가 기록한 워크숍 운영 일지이다. 40회에 걸친 동영상 관찰 기록과 워크숍 운영일지가 힘에 겨워서 치밀하게, 심층적으로 기록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둘째, ‘면담 자료’는 워크숍 진행 중에 집중관찰 참여자와 부정기 적으로 나눈 면담 자료 그리고 면담 형식을 취하지 않은 참여자들의 인사 나누기, 소감 나누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일상적 대화와 전화 통화 등의 보조 자료이다. 참여자 중에서 영상에 담은 집중관찰 참여자와 심층 면담을 계획하였지만 심도 있게 시행하지 못하였다.

셋째, ‘현지 자료’는 전기의 소감문과 후기의 ‘실천을 향한 실천’과 ‘실천에 대한 실천’ 기록지이다. 참여자들의 기록이 주로 메모 형태로서 학습의 근거 지표로서는 빈약해 보였다. 그 밖에 등록부, 출석부, 모둠 편성 등의 자료가 있다.

19) 위의 글, 17쪽

넷째, ‘연구자 자료’는 워크숍 진행 파워포인트로서 1차에서 4차로 진행하면서 누적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료이며, 기타 기록양식지, 워크숍 홍보, 안내 자료 등이 있다.

4. 자료의 분석과 해석

연구 계획 단계에서는 서근원이 개발한 ‘아이 눈으로 수업보기’를²⁰⁾ 적용하여 참여자의 눈으로 대화 과정을 보려고 하였다.²¹⁾ 워크숍에서 참여자의 말과 행위로 나타나는 대화 과정을 분석·해석하여 사회교리의 학습을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집 구성한 자료들이 너무나 엉성하고 산만하였으며, 수업의 틀과는 많이 달라서 ‘참여자 눈으로 수업보기’ 과정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 또한 수업보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동의 사회교리 교육 실행연구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면서 보고서 기술 단계에 포기하였다.

나는 먼저 전체 자료를 주제화하였다. 4차에 걸쳐서 구성한 전체 자료들을 반복하여 보고, 읽으면서 참여자가 보여주는 특징을 찾아갔다. 이때 참여자의 관점을 따라 참여자의 말로 관련지어지는 자료의 표현들을 주제어 아래 묶고 분류하였다. 이어서 연구 질문과 관련지으면서 주제화된 자료들을 구조화시켜 갔다. 구조화 과정은 워크숍의 차수, 지역,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는 주제화와 구조화 과정을 통해서 들어나기 시작한 의미를 찾아 갔다. 주제어 사이의 관계, 그들 사이의 연결된 방식, 전체와 부분들 사이의 관계 등에서 워크숍은 의미를 띄어 갔다.

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현상이론 생성의 가능성을 보고 싶었다. 실행연구는 ‘학문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성되고 현장에 뿌리를 둔 현장지향적인 이론의 생성과 발전을 지향한다. 이 연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역동적이고 잠정적인 현상이론을 생성하기를 기대하였다.²²⁾

나는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에는 서투른 편이다. 그렇지만 워크숍 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들이 겪은 이해/실천을 상황과 맥락을 담은 생생한 현장 경험으로 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독자와 함께 논의하는 글이 되기를 갈망한다.

20) 서근원, 『수업, 어떻게 볼까?』 (서울: 교육과학사, 2013), 245-258쪽

21) 위의 책, 259-280 참조. 서근원은 ‘아이 눈으로 수업 보기’라고 하여 수업을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이 방법은 1차적으로 학교의 수업 연구에 적용되지만 나는 사회교리 워크숍도 일종의 수업이라고 보고 적용하고자 하였다.

22) 조용환, 앞의 글, 17쪽

III.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을 위한 실행 과정

1. 새로운 답이 된 사회교리

무엇이 1, 2차 워크숍을 실행연구 답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 사회교리 워크숍이 ‘사회교리는 확립된 신앙개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신앙을 담는 복음화 과정’이라고 주장은 하였지만, 사회교리가 참여자들의 삶에서 이해/실천으로 표현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워크숍이 의도한 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주제를 제시하는 시간은 운영자의 강의 시간이 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사회교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나뉘는 생활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전적으로 바뀌어야 할 신앙으로서 사회교리 답지 못하다.’는 관점이 밑에 깔려 있었다. 은연중에 지금까지 몰랐거나 편견에 치우쳤던 사회교리를 바로 잡을 ‘새로운 개념 학습’을 하고 있었다.

1) 지난날 경험 한 자락

참여자들은 사회교리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교육, 교육다운 교육이라는 소감을 말하고 있다. 다음 소감이 전형적인 표현이다.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는데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교리 원리, 사명선언문을 고민하고 의식하고 구체화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각 주제의 의미를 짚어 주어서 좋다. 주입식 교육에 젖어 왔는데 대화의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안동, 이정상 소감문에서)²³⁾

사회교리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참여자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에 따른 삶의 전환이 온 것 같지는 않다. 워크숍이라는 새로운 신앙교육 방식을 접하면서 사회교리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하지만 사회교리를 살아가는 삶의 전환으로 이어 주는 매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여자에게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에 대한 바람과 실제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사회교리 워크숍은 ‘사회교리에 대한

23) 이름은 가명이다. 이하에 연구 참여자로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새로운 답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가 되고 있을 것 같다.

안동 워크숍에서 나누어진 대화를 보자. 대화 내용은 대개 지금 여기서 벌이고 있는 실천이 아니라 예전에 겪었던 경험들이다. 좋은 사례를 회상하고 소개하는 일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몇몇 참여자의 특별했던 경험이고, 지금 나의 삶의 변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여겨졌다.

결혼 전에 공장에 다닐 때(삼십 수년 전) 주야간 교대 근무를 했는데 야간하고 낮에 회사에서 화장품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다. 소록도로 전달하러 가고 싶었는데 못가고 지역의 음성 나환자촌을 찾아가서 같이 어울려 놀았다. 성당 지으러 모금 중이라고 해서 모은 돈 30만원을 전달했다. (안동, 안정숙)

전에 노란 봉투가 돌았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하여 40억 가압류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주부가 아들 학원비를 노란 봉투에 담아 보냈다고 가수 이열이 널리 알렸다. 4만원씩 10만 명이 모이면 된다고 하였다. 40만원은 무리지만... 나도 46,000원을 넣어 보냈다. (안동, 이희순)

대화 내용이 지난날의 경험을 회상하는 흐름이 된 것은 워크숍 운영 탓인 것 같다. 먼저 운영자가 대화 시간에 경험을 나누자고 하였는데 참여자들은 '경험'을 언젠가 겪었던 일로 받아드린 것이다. 다음은 워크숍의 경계 문제로서 참여자들은 모여서 집단 회를 여는 시간은 워크숍이고, 집담회 사이의 현장실천 기간은 워크숍 밖의 시간으로 여긴 것이다.

상주 워크숍으로 넘어오면서 나는 '현장에서의 실천'과 '워크숍에서의 실천'사이의 관계를 고민하다가 '워크숍의 대화도 실천이다. 메타 실천이다.'라는 관점에 이르렀다.²⁴⁾ 그래서 워크숍에서 '실천을 향한 실천' '실천에 대한 실천'²⁵⁾이란 말을 쓰기 시작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이 한결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갔다.

돈 20만원을 벌었다. 지난 2주간 냉장고를 썩 비우느라고 마트에 가지 않아서 벌었다. (상주, 최민선)

통일 주제를 듣고 지난주 일부러 아들을 데리고 휴전선 철책을 보러 다녀왔다. (상주, 김병수)

24) 조용환, 앞의 글, 16쪽

25) 같은 글. 메타 실천에 대해서 현장 실천 전과 후라는 시간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붙인 이름이다. 좀 더 자세한 특성은 <표 6>과 <표 7>을 참조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전체 대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였다. 소수의 참여자들이 주제를 한 주간의 현장실천으로 끌어 들이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갔지만 워크숍 전체를 이끌지는 못하였다.

2) 생활현장 실천과 동떨어진 이야기들

어렵사리 모인 참여자들 중에는 정평위원, 사회운동 활동가, 교회 내 단체 대표 등 안동지역 성당의 명망가들이 태반이다. 워크숍을 시작하면서 신청자가 덜 온듯하여 “앞으로 좀 더 오겠지요?”하니 즉각 “안동은 사회교리에 부정적이라 더는 없을 겁니다.”라고 답한다. 안동지역과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하는 말들이 이어졌다. 참여자들 중에 비판의식이 높은 신자들이 많아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동사람들은 환경 의식이 빈약하다. (타 지역에서 안동으로 전입 온 신자)
안동이 문제야, 정치의식을 보면 2, 30대도 노인 같고... (사회운동 활동가)
다른 지역보다 농약병 비닐 수거가 안 되고 있다. (교회 내 단체 대표)
목욕탕에서 공중도덕을 너무나 지키지 않는다. (단체 대표)

교회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다른 지구의 워크숍에서는 교회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었다.

실제로 현장중심 사목이 없잖아요. 전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사명선언문 발표 후에는 없었어요. 신부님이 그렇게 안했고 우리도 안했어요. (정평위원 참여자)
사목회도 인맥 따라 모였다. 복음화는 뒷전이고 친목과 인맥 다지기가 판친다. (단체대표)

교회가 중산층화 되어 끼리끼리 문화를 조성하고 신자 간에 갈등이 심하다. (정평위원 참여자)

한 두 사람이긴 하였지만 워크숍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생활현장에서의 변화를 강조하는 흐름에 대하여 “수신제가... 하자는 것인가? 수신제를 앞세우면 사람들은 위축되고 소외되기 쉽다.”(사회운동 활동가)라고 문제 삼는다.

한편 나는 이와 같은 평가적인 태도가 ‘실제로 안동에 두드러졌는지, 내가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든다. 나는 내심으로 안동의 참여자의 특성과 분위기를

‘비판적인 이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생활 현장과 동떨어진 다른 한 현상은 구체적 실천보다 일반적인 화제를 다루는 대화로 치우친다는 점이다.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우리 예기를 하자고 해도 참여자들은 자꾸 풍문으로 떠도는 세상 이야기를 늘어 놓는다. 정치, 경제 주제는 워낙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니까 세상사를 예기하겠다고 싶었다. 그래서 상주에서 부터 주제 이름을 생활경제, 생활정치로 바꾸었지만 크게 변화가 없었다. 농민과 농민사목이 주제였을 때는 농민 사목과 신앙은 뒷전이고 농촌 농업 문제의 심각함에 대해서 나도는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주제가 바뀔 때마다 ‘4대강 개발과 낙동강 녹조문제, 전기는 공장에서 아껴야, 핸드폰 중독 문제, 분단은 친일 청산을 못한데서...’ 등 생활현장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워크숍에서 주제를 제시하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대화하자고 주장만 하였지, 참여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생활현장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는 ‘주제화 과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치, 경제, 문화... 주제가 일반사회의 문제이지 나의 생활현장의 문제라고 여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3) 현장의 엄정함, 치열함

남자들 중 일부 참여자들이 보기에 집담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교리는 엄정하고 치열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회생활 안에 신앙을 담으라는 말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얼마 전 대구에 문상을 갔었다. 숙질이 함께 안전이 허술한 곳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삼촌은 죽고 조카는 중상을 입었다. 그 사고를 보면서 삶이 돈의 노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회사에서 일 잘 못 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손찌검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 번씩 술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 남자들에게 직장, 일은 전쟁이다. 저녁이 있는 생활은 꿈같은 예기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병수)

사업의 성패는 관계된 공무원들과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느냐에 좌우된다. 전에 한 번 맡은 공사를 아주 공들여 하였더니 일을 잘하였다고 지역주민과 담당 공무원한테 크게 치하를 들었는데 그 다음 우리 회사에는 공사 수주가 끊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에서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송원길)

가혹한 현실을 말하고 있다. 참여자가 마주하고 있는 일(직장), 정치, 경제 등의 객관적인 현실을 사회교리 워크숍이 바꾸어 줄 수는 없다. 그렇다고 객관적인 현실을 떠나서 사회교리를 다룰 수는 없다. 워크숍은 객관적인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주관적인 의미 문제를 다루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객관과 주관을 나누는 접근이 아리송하고, 어떤 이에게는 겉도는 이야기에 그치고 있었다.

4) 모범 답을 내겠다.

주제 대화를 하자면 가르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 주제가 질문으로 다가올 때 답을 가지고 있거나 답을 찾아서 제시하고 싶은 것이다. 워크숍마다 그러한 이들이 없지 않았지만 상주 워크숍이 심하였다. 연세 높은 한 참여자는 가르치고 싶은 것이 언제나 넘쳐난다. 주제마다 풍부한 식견을 풀어놓았다.

정치는 삶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잘못된 정치를 그냥 보고 있는 것은 죄짓는 것이다.

자동차를 1시간 타면 사람 30명이 한 달 쓸 산소를 소비한다. 하느님 주신 공기를 오염시켰으면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

혈압, 불편하게 살고 먹는 것 거칠게 먹으면 10년 안에 고칠 수 있다. (안대식)

성당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 대화의 흐름을 신앙과 결부시키도록 하면서 모범 답을 찾게 하였다. 주제 제시부터 ‘이 주제에 대한 복음 메시지는 이러저러합니다.’라고 함으로 참여자는 경험이나 생각을 그 쪽으로 관련지으려 노력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고 나서 끝부분에는 ‘이렇게 작은 나눔에 참여하였다. 신자들은 그런 활동에 나서야 한다.’ ‘작지만 했더니 소문이 나서 인사를 듣게 되었다.’라는 말들을 덧붙였다.

2. 실천 과정으로 다가가다.

실천은 사회교리의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사회생활과 신앙의 만남에서 사회교리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관점에서는 사회교리는 실천으로 표현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실천이 말처럼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2017년에 들어오면서 ‘현장에서 실천’과 ‘워크숍에

서 실천'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현장 실천을 앞두고 워크숍에서 현장실천에 대하여 대화로 기획하는 과정은 '현장 실천 전의 메타 실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이를 '실천을 향한 실천'이라 이름 하였다.

참여자들이 효율적으로 대화하기 위하여 실천을 향한 실천을 포로 제시하였다. 포의 절차 중의 '일상'은 먼저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나누어 봄으로써 출발점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이다. '복음 메시지'는 주제에 대하여 교회가 선포한 사회교리를 제시하는 자리이다. 이 자리는 연구자가 준비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참여자가 주제를 전유하고 주체적으로 의미화하기를 바라면서 주제를 제시하였는데 자주 설명이 길어져서 이어지는 과정이 시간에 쫓기곤 하였다. '도전'은 일상과 복음 메시지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일상에 복음 메시지를 담을까?'를 찾는 과정이다. '다듬기'는 앞에서 찾은 도전을 생활현장의 상황과 맥락에 맞추어 조정하는 과정이다. '작정'은 다듬은 도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현장실천을 한 번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도전, 다듬기, 작정은 실제 운영에서 참여자들이 의미 있게 구분할 수 없거나 번거롭게 여기는 경우가 생기고, 시간도 부족하여 단계 안내만 하고 주로 함께 다루었다.

〈표 6〉 실천을 향한 실천('4주제: 생활경제' 사례)

절차	내용				
일상	나(가정)의 생활경제는 (모습, 특징, 소중한 가치, 문제의식)이다.				
복음 메시지		열린마음	소박한 삶	생명중시	나눔과 섬김
	돈벌이(소득)	양심	탐욕	생태계	편익
	돈쓰기(소비)	공동선	분수	쓰레기	바치기
	돈 모으기(재산)	공유	투기	천상재물	가난한 이의 몫
도전(통합)	(돈 벌고, 쓰고, 모으는 생활경제에서) (열린 마음, 소박한 삶, 생명 중시, 나눔과 섬김을 살릴 방도)				
다듬기	사람관계				
	실천참여				
	수단동원				
작정	나는 (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하겠다.				

현장 실천 후에 실천에 대하여 워크숍에서 대화로 나누는 과정은 '현장 실천 후의 메타 실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이를 '실천에 대한 실천'이라 이름 하였다.

표의 ‘체험’자리는 작성(지난주)을 현장에서 실천한 내용을 적는다. 실천이 어떤 사회관계에서, 어떤 상황과 맥락으로 체험되었는지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였다. ‘대화’ 자리는 참여자들이 함께 체험을 나누는 내용으로서 먼저 모둠에서 다음에는 전체가 나누었다. ‘새로운 작성’은 대화를 성찰하고 재조직하면서 발전시키는 자리이다. 세 과정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보다 입체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에게 대화 자료를 표에 기록하여 운영자와 소통의 자료로 삼고자 하였는데 상당수가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도 메모 형태로 자세하지 못하였다. 제시한 표에 문제가 있었는지, 참여자들이 기록을 어려워해서 인지는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표 7〉 실천에 대한 실천

절차	내용
체험	작성 ▶ (관계 ▶ 상황 ▶ 맥락) ▶ 체험
대화(질문공유)	발표를 들으며 (떠오른 질문 생각나는 경험 공감하는 체험)
새로운 작성	이어갈 작성 - 작정을 고쳐봄 - 새로운 작성

1) 생활에 신앙을 담는 과정이 보이는 듯하다.

‘실천을 향한 실천’과 ‘실천에 대한 실천’표를 사용하면서 주제를 대하는 자세에 변화가 오고 있었다. 표를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한 것이 매개과정이 된 것 같다. 점차 자신을 열고 속내를 드러내면서 삶의 자세를 바꾸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 놓고 있었다.

아직 안 늦었다고 봐요. 지난 시간에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말이 와 닿았어요. 아저씨가 하느님이라고 그랬잖아. 딱 와 닿았어요. 인제는 늦었다 싶었는데 늦었다 싶은 때가 빠른 때라 카잖아요. (문경, 임윤희)

실제 삶의 문제를 신앙과 관련지으려는 자세도 변하고 있었다. 그동안 성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신앙을 다시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의 사회관계 안에서 신앙을 보려는 변화를 보였다.

서로 혈통고 갈등하며 일하고 있어서 일보다 관계가 더 힘들어요. 그와 만나면 감정처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인사하고, 관심보이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한 수위 낮추고... 내가 마음을 더 열어야지요. (문경, 강숙이)

신앙이 특별한 것 아니라고 본다. 먹고, 자고, 이웃 만나고 이 모두가 신앙과 관련 있을 것이다. 그동안 기도문 줄줄 외우고 레지오 열심히 해온 것만 신앙일까?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만나고 나누고 섬기고 이것만 잘되면 신앙은 따라올 것이다. (문경, 오대철)

2) 가정에서 출발하면 될 것 같다.

가정에 대한 사회교리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늘 격고 있는 상황이니 실천의 의미가 손에 잡히는가 보다. 장경숙은(여장부 같은 풍모를 보인 참여자) 처음에는 “취직 못하고 장가 안간 아들을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 고운 말투로 말하고, 목소리를 낮추”는 단순한 실천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워크숍 후반에는 어머니도 아들도 여러 해 동안 도전해온 세무사 시험을 그만 두고 농사를 물려받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기울며, “소를 50마리 사 주기로 했다. 농사도 잘만하면 소득이 괜찮다.”고 하였다.

우리 집에는 ‘우리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다’라고 위계적이었다. 이번에 아들에게서 하느님의 모상을 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몇 가지 걱정하였다. ‘고맙다’고 말하고 고등 학생이지만 ‘안아주고’ 대화 시 의견을 물어주었다. 남편도 권위를 내려놓았다. 가정이 엄청 변화되고 있다. (문경, 공한나)

가정에서 출발하니 쉽게 구체적인 실천거리들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비누 샴푸 1/2로 줄이기, 물 받아서 쓰기, 성당은 걸어서, 샤워는 10분 이내. (문경, 김현숙)

가족 카톡방을 만들었다. (문경, 천상호)

자식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자식의 신세대 생활 방식을 수용하게 되고 며느리를 딸로 사랑하게 되었다. (문경, 이숙경)

문경 워크숍 참여자들은 열심히 구체적인 실천거리를 찾았고, 현장실천 때문에 스스로 변화되고 있다는 말을 곧잘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천들이 유기적으로 얹히지 못하고 낱알으로 따로따로 떨어지고, 일시적인 실천에 그치고 있어서 참여자가 사회와 신앙을 새롭게 해석하고 실천하는 ‘삶의 전환’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았다.

3) 이것이 생활세계에서 실천이구나.

전기에 일반적인 실천이 후기로 오면서 생활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자리 잡아 갔다. 은퇴자는 은퇴의 삶에서, 시골 공소 신자는²⁶⁾ 시골 공소의 현실에서 주제를 마주하고 있다.

그 달에 쓸 수 있는 용돈을 쏴아 보고는 다음 달까지 남기지 않고 그 달에 다 쓰도록 한다. (문경 오대철)

(시골 공소 예배에서) 나는 음치인데 성가를 큰소리로 불렀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였다. 진작부터 그를 것들... (생활정치 주제 사례)

나는 얼마큼 약한 사람인가? 레지오 단원이 봉사한다고 공소 마당에 제초제를 쳤다. 내가 ‘하지마라’고 못했다. 생명 죽이는 일 말리지도 못하였다. 공소에 평화가 없다. (평화 주제 사례) (문경, 이형직)

남편이 나더러 남의 일하듯 한다고 불평한다. 주체적으로 실천해보니 달라졌다. 사과 밭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소중한 일 신나게 감사하며 해야지. (문경, 김현숙)

생활경제는 자신의 생활현장의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고, ‘생활정치’는 생활현장에서 참여가 질서를 조정해가는 모습으로 주제화 되고, ‘평화’는 일상의 질서에 대한 경험에서 주제화하기도 하였다. 실천과 대화 안에 현장실천의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 중심의 접근이 주류를 형성한’ 모습 보다는 새로운 실천 모습으로 눈에 띄었다.

26) 시골 마을에 성직자 없이 주민 신자들이 모이는 작은 천주교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3. 생활현장이 실천공동체이구나.

3차(문경) 워크숍을 거치면서 생활현장으로 대화가 들어오고 있지만 대화와 삶이 연결되는 모습이 영성하거나 서로 겹돌고 있다고 여겨졌다. 매주 주제가 사회생활의 영역을 따라 바뀌면서 참여자는 주제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주제가 옮겨 가면서 참여자는 주제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산만하여 초점을 잃기 쉬웠다. 생활정치, 생활경제 등으로 범위를 좁혀 보았지만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주제 사이의 유기적 연결 고리를 찾다가 2017년 안동교구 사목교서 ‘가정의 쇄신’에 착안하게 되었다.²⁷⁾ ‘생활현장을 가정으로 한정한다면 모든 주제가 가정공동체 과정 안에 있겠다.’는 깨침이 왔다. 의성 워크숍은 생활현장을 가정공동체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또 의성은 지구사정으로 의성 본당 신자만으로 참여자가 구성되고, 그중 절반 정도는 주일학교 어머니들인 젊은 주부로 조직되어 공감대와 친밀감이 높았다. 가정공동체는 ‘가족의 일원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매사를 실천하고, 그러면서 가정에 소속감이 높아지고, 가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실천공동체’로 볼 수 있다.²⁸⁾ 사회교리 워크숍이 가정공동체 안에서 주제가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주제들은 실천공동체의 ‘공동체 과정’²⁹⁾으로 다루어지면서 새로워지고 있었다.

1) 실천의 벽을 만나지만

가정의 현실에 교리를 담으려고 나서보니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가로 막는다. 집집마다 구조적이고 누적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한걸음 나가다가 두 걸음 물러서는 상황”(차미순)이 빚어진다. 조영숙은 아이들이 넷인데 남편은 야간에 일하는 직업이고 본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정사랑은 늦게 결혼하여 얻은 아들이 자폐아 판정을 받았고 남편은 장애를 받아드리지 못하고 있다. 차미순은 남편이 테니스에 빠져 가정사에는 전혀 무관심하다. 그러나 어려움 들이 벽으로 머물지 않고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었다.

27) 천주교 안동교구, 「2017년 사목교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 가정의 쇄신 -」 (안동: 천주교 안동교구, 2017)

28) 에티엔 웅거, *Community of Practice*, 손민호·배을규 역, 『실천공동체』 (서울: 학지사, 2007), 24쪽

29) 위의 책, 89-115쪽 참조. 여기서 ‘공동체 과정’은 ‘실천공동체’를 원용한 말이다. 공동체 과정은 공동체 관계 안에서 의미 협상 과정으로서 실천을 거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큰아들(초등 6)과는 주2회 이상 대화 시간을 갖겠다. 딸(초등2)과는 눈 맞추고 하루 일과를 들어주겠다. 유치원 쌍둥이 딸과는 공원에 가서 놀아 주겠다. (최초 작성)

큰 애 둘은 각자와 1:1로 대화하고, 안아주고, 아이 말을 경청해주고, 쌍둥이와는 많이 놀아 주었는데 각자가 엄마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해왔다. 나는 시간에 쫓기고 몸이 안 좋아서 주 후반에는 허물어졌다.(한주일 동안 실천) (의성, 조영숙)

조영숙의 아이들은 큰애는 가사의 한몫을 맡고, 유치원 쌍둥이도 자기의 속옷과 양말은 스스로 손빨래를 할 정도로 자율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모두들 자기주장이 강하여 계속 목소리들이 커지고 불평이 쏟아진다. 워크숍 후반에 엄마는 폭탄선언을 하였다.

너희들이 맨날 싸워서 각각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내려고 한다. ‘혼자 사랑받을 집으로 입양을 갈지, 함께 사이좋게 살지’너희들이 의논하여 선택하여라.(8째 주 선언)

‘함께 사이좋게 살겠다’는 서면약속을 받고 끝이 났다.(9째 주 결말)(의성, 조영숙)

차미순은 부부의 성격차이로 가정 안에서 서로 맞출 수가 없다고 여기면서 워크숍 초기에는 해결할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겼는데 후기에는 자신의 문제로 안고 대결하려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언제나 내만 왜 노력해야 돼?(초기의 불평)

우리 부부는 평행선을 가고 있다. 덮어서 평화를 누릴까? 터뜨려 고름을 짜야 할까? 올 여름방학 프로젝트로 삼겠다.(마칠 때의 자세)(의성, 차미순)

실천이 특별히 달라졌다고보다 실천공동체 안에서 맞추는 점이 달라진 것 같다. 가정이라는 실천공동체 안에서 실천은 가정의 상황이 반영되어 그 가정에 독특한 실천이 되고, 또 실천이 벌어지는 맥락이 가족 사이에 서로 맞추어지면서 살아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2) 공감의 확산되고 있다.

생활세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정의 쇄신’으로 구체화하면서, 참여자들이 가정의 문제를 속속들이 들어내는 것을 어려워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공감이 번져 갔다. 정사랑이 첫날 대화에서 결혼 전의 방황, 삼십대 후반의 늦은 결혼, 아

들의 자폐아 판정, 남편의 몰이해를 털어 놓았다. 어느새 다른 참여자들도 마음을 열어 갔다.

부담스럽게 시작했는데 3회부터 즐겨보자 싶어졌다. 신앙과 사회생활의 관계는 한번은 관심 가지고 접해야겠다고 여겨졌다. (의성, 정대길)

내 예기 아니어도 각자의 예기에 공감이 되더라. 생소한 예기인데 공감이 되었다. 이 시간이 즐기는 시간이어서 개근하였다. (의성, 조영숙)

내어 놓고 수습할 필요가 없고, 내어 놓으니까 얻는 것이 있더라. 터놓고 나니 달라지게 되더라. (의성, 이유미)

참여자들, 특히 젊은 엄마들은 휴식 시간에도 번번이 집담회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 참여자들의 대화도 공동체 과정을 닦아가서 서로 맞추어 가는 듯하였다. 워크숍 참여자들이 실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

3) 남편이, 가족들이 바뀌었어요.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가정공동체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이야기들이 곧 잘 나왔다. 그렇게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왔다는 것이다. 워크숍에서 ‘계획 - 실행 - 평가’와 ‘실천을 향한 실천 - 현장 실천 - 실천에 대한 실천’의 차이가 여러 차례 예기되었다. 전자는 실행의 주체인 나는 변하지 않고 나의 활동이 변하는 것이고, 후자는 실천하면서 내가 되는 과정이라고 구분하였다

지난 주말 딸애(고등학생)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끔찍되는데 탄 말은 안하고 열심히 딸의 고민을 들어 주었다. 전 같으면 내가 닦달하고 딸애는 틀어졌는데... 오늘 잘 해결되었다고 학교에서 전화를 걸어 왔다. (의성, 이유미)

고비가 2번 있었는데 훌륭한 이들과 함께해서... 워크숍이 가슴 떨리는 시간이었다. 지난 8년간 야간 외출을 안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성당 안가나?’ 그르더라. 세례 후 처음으로 찌릿찌릿 번개 맞았다. (의성, 정사랑)

참여자들이 되어가는 과정에 들어섰을까? 몇 번의 만남을 두고 너무 선부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심은 들지만 실천공동체로서 가정의 공동체 과정이 큰 힘으로 작용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4) 내가 그랬구나.

의성 워크숍에서는 주제가 참여자들의 생활 안으로 파고들고 삶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는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당연하던 세계가 새삼스러워졌다.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주체가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 차미순은 몸들이 신자화 되지 않아서 “성당에 오면 사람들에게 섞여서 따라 하긴 하지만 의미를 못 느꼈었고, 집에서는 성호도 잘 못 긋는다. 더구나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가 없었다.” 생명신앙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자 “이번 주는 어렵다. 내안에 쏙 들어온 느낌이어서 꾸밀 수가 없다. 포장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였다. 여러 사람이 ‘군대식이 편한데 대화가 너무 어렵다. 인간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부모력도 있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내가 그러고 있는 줄을 몰랐다. 애들이 내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 한데. 나는 화 안 냈는데... 화를 내며 이야기할 때 ‘이것이다’라고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엄마, 왜 이렇게 착하게 이야기해?’ 아 그래, 이럴 때 마다 이야기해 줘. (의성, 차미순)

막연했던 단어가 와 닿게 되었어요. 적절한 말을 쓸 때 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똥똥 떠다니던 말이 내 말이 되도록 해주었어요. (의성, 오은희)

사회교리 워크숍은 나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나는 존재로서 나가 있고, 관계로서 나가 있다고 보는데 사회교리는 관계로서 나를 보게 해 주었다. (의성, 이영훈)

정평 위원장 신부는 마칠 때 와서 소감을 듣고 마무리 말씀을 준다. 그러나 격려 방문차 온 신부들은 지켜보다가 ‘참 좋은 교육이구나’하고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다. 참여자가 실행자이고 연구자가 되고 있는 교육 모습을 보면서, 사제가 사목자로서 가르칠 상황이 아니라 워크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습을 보는 관찰자임을 감지한 듯 하다. 나는 진행자로서 과정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의 대화와 실천은 참여자의 몫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래도 가르치는 태도를 온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IV.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의 교육적 의미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 사람들이 안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현장의 삶 안에서 실천을 통하여 풀어가고 그 실천을 성찰하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 과정들 안에서 연구를 진

행시키려 노력하였다. 이 연구를 거치면서 사회교리의 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점을 실천적으로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교리 교육의 현장이론 생성의 가능성으로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이하의 논의는 또한 실행연구를 통하여 얻어낸 연구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이기도 하다.

1.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이 새롭게 보인다.

이 연구는 사회교리를 삶으로 학습하는 과정에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이 따른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연구를 거치면서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의 통합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을 거치며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통합이라는 말의 사용이 어려워졌다. 시작할 때는 신자의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리’와 ‘통합’ 어느 한 쪽에 기울어 있다고 여겼는데, 양자의 관계를 통합 아니면 분리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사회생활과 신앙의 관계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이어서 ‘이중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⁰⁾ 누구에게도 사회와 신앙이 분리 될 수는 없고 사회와 신앙이 관련되는 양상이 다른 것이다. 어느새 통합이란 말은 ‘일상에 신앙을 담는다.’는 말로 바뀌고 있었다.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사회교리 학습의 과정은 인지적인 문제이기 보다 삶으로 이해/실천하는 문제이며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서, 다음 과정들을 거치면서 일어난다고 여겨진다.

첫째는 사회생활에 신앙을 담는 시각의 전환으로서의 ‘주제화’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사회와 신앙을 관련지어 보는 경험이 거의 없었다. 아니 지금까지 관련짓던 방식에서 복음화 방식으로 새롭게 관련짓는 과정으로서 주제화가 필요하였다. 흔히 신자들은 사회에서는 세속화된 방식으로 생활하고 성당에 가면 교회화된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회와 신앙의 관련은 방식과 정도의 문제이지 무관할 수 없다. 기실 무관함도 관련짓는 방식 중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배경에 머물러 있는 사회와 신앙의 관련을 전경으로 불러내는 과정에서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은 시작되는 것 같다. 이 과정이 사회생활에 신앙을 담는 ‘주제화’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생활현장에서 실천’해 보는 경험의 과정이다. 그동안 교회의 교리교육은 선포 쪽이 중심이 되면서 신자의 생활현장의 상황과 맥락에서의 실천 문제는 교육에 뒤

30) 에티엔 뵙거, 앞의 책, 109-115쪽

따르는 문제로 여겨왔다. 생활현장의 상황과 맥락이 담긴 체험 안에서 사회와 교리가 만날 때 이해/실천이 가능함으로 교육에서 실천이 분리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 ‘경험’은 여러 가지 활동 중의 한 가지에 그치지 않고 세계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틀과 상통하는 넓은 뜻을 담고 있다.

셋째는 생활현장에서 실천이 실천공동체와 만나는 과정이다. 생활현장을 가정, 직장 처럼 삶이 구현되는 실천공동체로 특정하고, ‘실천공동체에 맞추는 실천’ 안에서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을 때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이 심화 되는 것 같다. 참여자가 개체 인간으로서 이해/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공동체에서의 ‘참여 과정’ 안에서, 참여에 따른 ‘의미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³¹⁾ 이해/실천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주제화, 실천화, 공동체화는 사회교리의 도구적 특성과 구성적 특성을 잘 나타내기도 한다. 사회생활과 신앙의 관련성은 사회교리으로써 주제화하게 되고, 실천으로 이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형성 된다. 사회생활에 신앙을 담는 주제화가 진전되면서, 실천하면서, 공동체 과정에 놓으면서 사회교리는 참여자에게 비로소 구성됨을 볼 수 있다.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은 개인차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언제나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으며, 늘 확산 발전의 양상을 띠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래도 이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은 ‘누구 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였다.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은 이러한 ‘됨’의 과정이며, 복음화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교리는 어떻게 학습되는가?

워크숍에서 사회교리는 학습되었을까? 워크숍을 4차까지 연장한 것은 사회교리가 학습되고 있는 근거 지표를 확인하지 못해서였다. 3차까지도 나는 사회교리의 학습을 사회와 신앙의 분리와 통합 문제로 보고 있었다. 오히려 단계를 세분하여 ‘병렬 - 종합 - 통합 - 융합’으로 보고³²⁾ 어느 단계에 가까운지 확인하려 하였지만 뚜렷한 지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3차 워크숍을 거치면서 ‘분리에서 통합으로’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다. 이 관점에는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을 양적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4차에 이르러서야 사회교리의 학습을 질적으로 보게 되었다. 사회교리의

31) 위의 책, 94-95쪽

32) 서근원, 「질적 연구 컨설팅을 시작하며: 컨설팅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171차 월례 발표회 발표문, 2017) 서근원이 쓴 용어를 이곳에 원용하였다.

이해/실천은 사회생활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어떻게 신앙을 담게 되는지를 삶으로 표현하면서 체득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학습은 앞에서 살폈던 주제화, 실천화, 공동체화가 ‘삶으로 실현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로 드러나고, ‘실현될 때(안 될 때) 그 과정이 어떠하였느냐?’의 문제로 보인다.

첫 번째는 ‘주제화’의 실현 여부와 그 과정이다. 참여자들의 전기 대화 내용은 자신의 생활현장 보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기울고, 남을 비판하는 입장을 자주 드러내고, 주제에 대하여 모범 답을 제시하려 하였다. ‘주제화’가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여겨진다. 후기로 갈수록 자신의 생활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가정에서 찾은 문제를 주제의 변화에 따라 발전시키면서 다루고, 참여자들 사이에 공감을 키워가는 모습에서 주제화가 발전한 것으로 보였다.

주제화 과정은 운영자의 주제 제시 방식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사회생활에 신앙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계를 보였다. 주제를 구체적인 현장사태로 다루고, 사태가 그려지도록 질문하고, 실제의 과정과 단계로 쪼개어 제시하는 시도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의성 워크숍에서는 참여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참여자 안에서 주제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제화는 결국 연구자와 참여자의 자기 변화과정으로 보였다.

두 번째는 ‘실천화’ 학습이다. 전기의 실천 모습은 언젠가 겪었던 경험을 찾아내고, 현실의 어려운 여건을 넘어서지 못하고, 실천 들이 낱알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주제화된 사회교리는 생활세계를 해석/실천하게 한다면, 전기에는 주제화가 부실하여 실천도 부실한 셈이다. 후기에는 생활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하여 신앙을 담아서 실천하게 되고, 실천 범위를 가정, 직장 정도로 한정하면서 구체적이고 생기가 돌았고, 실천의 벽을 만났을 때도 자신의 문제로서 도전을 시도하였다. 후기 워크숍은 실천의 활성화를 보여주었다.

실천은 실천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전기에 실천이 부실했던 것은 워크숍이 실천의 과정을 제시하지는 않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후기에 들어오면서 실천화 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았다. 후기 워크숍에서는 실천을 향한 실천 - 현장 실천 - 실천에 대한 실천을 사이클로 하고, 각 실천은 구체적인 과정을 설정하고 참여자와 같이 찾아 갔다. 주제 중에서 실천과정에 대한 변증법적 해석/실천이 용이한 주제와 이를 간파한 참여자에게서 생동감 넘치는 실천이 나왔다. 그러나 주제에 따라, 참여자에 따라 실천과정의 조직은 번잡스럽거나 어렵게 여겨지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실천공동체 과정’이다. 실천은 개체로서 인간이 소속된 사회와 관계없이

별일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가족과 같은 실천공동체 과정에 ‘참여’하여 ‘의미협상’을 벌이는 과정이다. 실천공동체 과정은 참여자 사이에 협상을 거치면서 의미가 생겨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누구 됨’으로 나아간다고 본다.³³⁾ 사회교리 학습은 실천공동체 과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초기에 워크숍 참여자들이 ‘사회교리를 이해/실천하는 실천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때는 실천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4차 의성에서 각자의 가정이 참여자에게 실천공동체임을 알아보게 되었다.³⁴⁾ 사회교리 교육이 가정의 실천공동체 과정과 결합되면서 활발한 학습이 일어나고 있었다.

각각 독립적이던 주제들이 가정공동체 과정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이제 주제화가 한결 쉬워지면서 주제적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워크숍 회수가 진행될수록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장실천 사례들은 한결 현장감이 넘쳐났다. ‘남편이, 가족들이 바뀌고 있다.’는 보고들이 쏟아질 때는 참으로 놀라웠다.

나는 참여자들이 주제화, 실천화, 공동체화를 통하여 사회교리를 학습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학습은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지는 않고 ‘변화’로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 제시가 학습의 근거지표로 적절한지는 더 따져 보아야 할 것 같다. 한편 학습을 논의하면서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는 형식이 되었는데 이것이 안동 참여자에게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고 의성 참여자에게는 학습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구자와 참여자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가를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3. 사회교리 학습 프로그램은 개발되었는가?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회교리 교육을 위해서 사회교리학교가 아니라 사회교리 워크숍을 조직하였다. 우선 작고 가난한 농촌 교구라는 안동교구의 여건 때문에 학교를 열기 어려웠고, 다음은 사회교리의 특성이 학교를 통하여 교리를 전수하기보다 워크숍을 통하여 복음화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과 더 잘 맞는다고 보았고, 그 다음은 교육에 대한 관점으로서 교육을 교리를 전수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교리와 버금가는 삶의 형식으로 대하면서 참여자의 학습(복음화)을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참여

33) 에티엔 웅거, 앞의 책, 217-218쪽

34) 위의 책, 24쪽

자들 대부분이 새로운 신앙교육 방식으로서 워크숍을 좋아하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이 워크숍에서 사회교리를 이해/실천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동교구 교회에는 사회교리학교 보다 워크숍이 적합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였다.

실행연구를 거치면서 워크숍이 매우 역동적임을 주목하게 되었다. 사회교리 교육을 기획할 때는 먼저 사회교리 워크숍을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다음에 워크숍 운영 역량을 갖추는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자를 양성하면, 그 후에는 워크숍을 자주 반복하고, 널리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데 사회교리 워크숍을 거치면서 이 워크숍은 내재적으로 역동성을 지니고 있어서 고정된 과정의 개발과는 맞지 않고 여겨졌다. 워크숍 과정 개발은 워크숍의 역동성을 살려내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고, 워크숍 운영 역량 갖추기는 역동성을 살리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되어야함을 깨닫게 되었다.

4차례의 워크숍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었지만 모두 사회교리의 이해/실천을 키워가는 과정이었다. 관점을 전환하여 프로그램화의 의미를 고정성에 두지 않고 역동성에 둔다면, 안동의 사회교리 교육 과정은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동의 사회교리 워크숍은 늘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V. 다시 시작하기

종교교육에서 종교와 교육은 어떤 관계일까? 종교는 말 뜻 그대로 지상, 지고의 가르침이다. ‘계시 종교’인 그리스도교 교리는 하느님의 계시에 바탕을 둔 ‘무류의 진리’이므로 인간의 논의를 넘어선다. 이 지상, 지고의 가르침 앞에서 종교적 삶의 형식은 ‘귀의’로 나타나며, 신앙에 대해서 받아드리는 인간(학습자)의 주체성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은 종교적 삶의 형식과 구분되는 삶의 형식이다.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을 형성하고자 하는 변증법적 해석/실천의 과정”³⁵⁾이라고 한다. 종교적 삶의 형식과 교육적 삶의 형식이 서로 구분되지만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진다. 먼저 종교가 제시하는 ‘인간과 세상의 구원’은 교육이 추구하는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의 형성’과 상통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다음에 종교의 진리는 교육의 변증법적 해석/실천을 만나서 인간과 세상에

35) 조용환, 앞의 글(2001), 5쪽

드러날 수 있는 보완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사회교리 교육을 사회교리 워크숍으로 조직, 운영하면서 질적 실행연구를 시도하였다. 교도권을 중시하는 가톨릭교회에서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종교(교리)교육을 나서기, 더구나 삶의 형식으로서 교육을 주창하며 나서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평생 동안 교육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왔고, 신자로서 ‘시대의 징표’를 읽으라는 가르침³⁶⁾에 따라 감히 나서고 있다. 사회교리는 사회생활에 교리를 담고자 한다. 이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생활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현장실천을 통하여, 생활세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삶으로 학습해 가는 과정으로서 같은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가 맡아야 할 몫이라고 본다.

나는 질적 실행연구를 통하여 사회교리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현장 이론)을 발견하였다. 사회교리는 지식으로 전수보다는 삶으로 이해/실천되어야 하며, 이는 주제화, 실천화, 공동체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사회교리의 학습은 참여자가 ‘어떻게 주제화, 실천화, 공동체화 하였는가’의 문제로 보았다. 이 주제화, 실천화, 공동체화는 상황과 맥락 안에서 역동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사회교리 교육 프로그램은 역동성을 살리는 워크숍으로 개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의 발견들이 의미 있으려면 더욱 명료한 근거지표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 바람직한 표현인지, 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구조화 되는지 등이 더 연구되어야 것이다. 아직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선부를 주장에 그치고 있고, 또한 내가 택한 질적 실행연구로 드러나는 것은 사회교리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의 빙산의 일각에도 못 미칠 것이다. 그렇지만 변화는 누군가의 열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나는 다시 5차 6차 사회교리 워크숍을 나서고, 질적 실행연구를 나서려고 한다.

36)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4항

참고문헌

-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간추린 사회교리』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_____. 『사랑의 문명을 향하여 - 다시 간추린 사회교리 -』 서울: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2006
- 박석천. 「한국천주교회의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연구 - 신자 재교육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서근원. 「교육학으로서의 교육인류학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0(2)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2007)
- _____. 『수업, 어떻게 볼까?』 서울: 교육과학사. 2013
- _____. 「질적 연구 컨설팅을 시작하며: 컨설팅이란 무엇인가?」(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171차 월례발표회 발표문. 2017)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 사회교리 1(입문편)』 서울: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1995
- _____. 『가톨릭 사회교리 2(중급편)』 서울: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1996
- _____. 『가톨릭 사회교리 주제편』 서울: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010
- _____. 『가톨릭 사회교리 문헌편』 서울: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011
- _____. 『세상 속의 그리스도 1』 서울: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008
- _____. 『세상 속의 그리스도 2』 서울: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009
- _____. 『세상 속의 그리스도 3』 서울: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011
- 오일창. 「세속화 이론의 사회학적 의의」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우리신학연구소. 『안동교구 사목비전 설정 연구』 안동: 안동교구 사목국. 2004
- 유해령. 「질적 연구에서의 해석의 의미, 원리, 그리고 사례」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하계워크숍 발표문. 2015)
- 윤지운. 「Thomas H. Groome의 신앙 이해 및 신앙 전달 방법론 연구 - ‘피로사회’의 현대

- 인이 가지는 특성을 중심으로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용숙·김영천·이혁규·김영미·조덕주·조재식,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2005
-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전가일,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좋은 수업 만들어 가기: 해석학적 질문과 대화를 통한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7(2).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2014)
- 조영훈, 「교회의 교도 임무로서 교리교육」(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조용환, 『사회화와 교육: 부족사회 문화전승 과정의 교육학적 재검토』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_____,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_____,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 관계」 『교육인류학연구』 4(2)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2001)
- _____, 「질적연구와 질적교육」 『교육인류학연구』 7(2).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2004)
- _____,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8(4).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2015)
- 천주교 안동교구, 「농민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 안동교구 농민사목 특별교서 -」 (안동: 천주교 안동교구, 2004)
- _____, 『안동교구 사목비전 설정 연구 자료집』 안동: 천주교안동교구, 2004
- _____, 「2017년 사목교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 가정의 쇄신 -」 (안동: 천주교 안동교구, 2017)
- 에티엥 웅거, *Community of Practice*, 손민호·배을규 역, 『실천공동체』 서울: 학지사, 2007

원고접수일: 2017년 11월 16일 심사일: 2017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27일
연구자소개: 오일창

① 전공: 사회학 / 소속: 천주교 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종교사회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③ 주요논저: 「세속화 이론의 사회학적 의의」, 『작은 학교 행복한 아이들』(공저)

④ E-mail: 51chang@naver.com

Abstract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Social Teaching
A Practical Case Study of The Catholic Andong Diocese

Il-Chang Oh

The Catholic Andong Diocese Council of Justice and Peace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what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Catholic Social Teaching means', 'how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is learned' and 'what should be done the programme for the learning' through qualitative action research.

The case of action research is a workshop conducted by the Andong Council of Justice and Peace which was conducted at local church of Andong diocese from 2016 to 2017. The workshop was a process whereby participants talked about the topic of Catholic Social Teaching, and the researcher worked as an operator to research for practice and to practice for research.

I expected that social life and faith would be integrated through workshop of the Catholic Social Teaching. However, I was disappointed with the expectations of the former part(2016) workshop. In the later part (2017), especially the 4th workshop, I realized that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Catholic Social Teaching is a complex, multifaceted and qualitative phenomenon. The participants showed a dynamic view of topicalization, practicalization and community process in their situation and context.

There is lack of contents in this study. But there is a new dimension of Catholic Social Teaching education in the sense that the laity has become a main agent and his understanding/practice has become qualitative action research of the field of living in this study.

Key Words: Catholic Social Teaching, Understanding/Practice, Learn, Qualitative Action Research, Workshop, Dynamic View, the Field of Living